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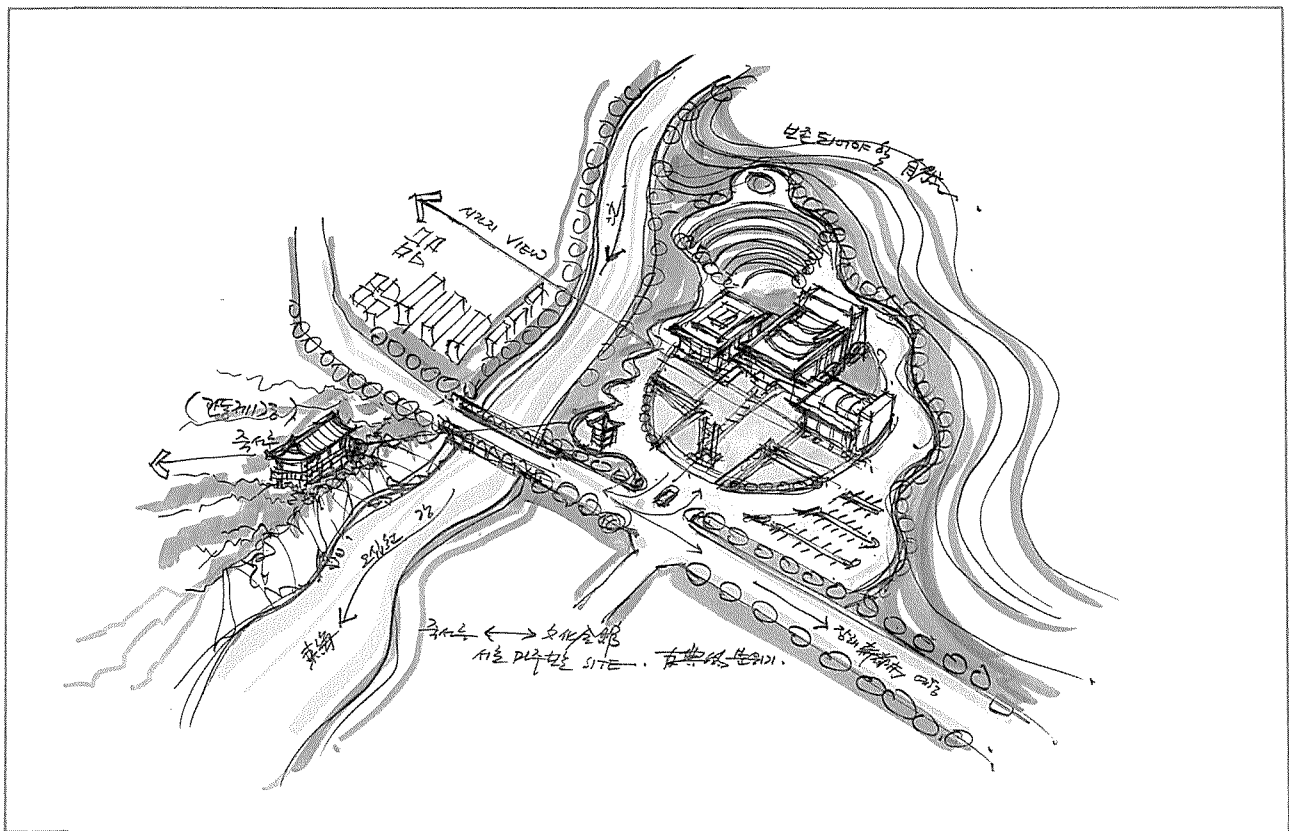
삼척시 종합문예회관 계획 (안)

Samcheok Culture Center Planning

SKETCH

崔相龍 / 예림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Sang-Yong



Competition

그것은 신선한 청량감과 함께
무방비 상태로 전장에 나서는 불안하면서도
흥기분함이 있고,
日常에 좌절하고 상처 입은 심신을 도피시킬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하다.
그래서,
思考하는 대로 스스로 엄격한 Owner가 되기도 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채무자가 되어서도
즐겁게 밤을 밝힐 수도 있었다.

삼척시

태백준령을 넘고넘어 동해 바다를 굽어굽어
이곳은 정철의 「송강가사」와
관동팔경 중에 제1경인 죽서루와
오십천 맑은 물 건너편의 Site에는
동해를 거슬러온 갈매기들이
동양화를 그리고 있었다.
언뜻 스쳐서 느낀 Image를
다섯시간의 차창에서 다시 다시 Sketch해 보고는 반문해 본다.
「자연속의 죽서루와 풍류의 멋을 창조한 先人들은
이 장소에 어떤 構想을 했을까?……」

